

## [ 바둑 ]

## 세계 '바둑 올림픽' 닷 올랐다

최초로 열리는 제1회 세계 마인드스포츠대회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 일본에 이어 대만이 최근 대회에 출전할 선수를 발표하는 등 참가국들이 선수단 구성을 모두 마쳤다.

대만은 응경기바둑교육기금회가 주최한 대만기원, 중국위기회 등이 공동으로 선수를 선발했다.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 기사 등을 포함해서 최장예 선수를 중심으로 뽑았다.

응경기측은 저우쥔쥔, 펑진화 등을 확정했으며 한 때 90년대에 저우쥔쥔과 패권다툼을 벌이다 외국으로 간 시아지엔위를 뽑았다. 대만기원은 천스위엔, 린즈한, 샤오정하오 등 대만기원 상위 랭킹 3명을 뽑았다. 또 강정평, 장카이신, 당시원, 샤오아이린 등 여류기사 4명을 출전 선수로 확정했다.

일본기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사 가운데는 왕리청, 왕방완, 린한지에, 관산치, 장리요우, 황이주, 리이시우를 비롯해 왕리청의 딸인 왕징이, 씨에이민, 관운위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대만의 대표 주자인 장쉬는 명인전 도전기와 일정이 겹쳐 출전하지

않는다.

대만은 아직 종목별 출전 선수를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기원도 최근 국내 랭킹 2위인 이창호 9단과 제외된 국내 랭킹 최상위권 프로기사 21명과 아마추어 4명 등 총 25명(남자 16·여자 9) 명단을 발표했다. 남자단체전(10월 12~18일)에는 이세돌, 조한승, 원성진, 박정상, 한상훈, 이영구가 출전하고, 남자 개인전(3일~9일)은 박영훈, 목진석, 백홍석, 강동윤, 최철한이 참가한다.

여자단체전(10~16일)은 김혜민 박지연 권학진이 출사표를 던졌고, 여자개인전(4~10일)에는 박지연은 이민진 이슬아가 출전키로 했다.

흔성체어전(11~18일)에는 흥성자·김은선 조, 윤소진·이하진 조, 흥석의·김신영(아마추어) 조가 나간다. 아마추어 전용종목인 오픈개인전(5~11일)은 선발전을 거쳐 함영우 이용희가 대표권

## 한국·일본 이어 대만도 선수단 구성 마쳐

## 한국팀, 이창호 제외 정예멤버 25명 발표

## 中, 창하오 등 총동원 금메달 싹쓸이 도전

을 획득했다.

개최국 중국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세계 마인드스포츠 분야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열성적으로 대회 준비를 하고 있다. 구리, 창하오, 풍지에, 후야오위, 루이니아이웨이 등 남녀 정상급 기사들까지 총동원해서 바둑 부문에 걸친 금메달을 쟁취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자국 3대 타이틀을 보유자인 야마시타 게이고(기성·이하 보유 타이틀), 다카오신지(본인방)를 비롯하여 고노린(천원), 하네나오기, 요다노리모토 등 최정에 맴버를 파견한다. 여기에 여자기사는 우메자와유카리(여류기성), 스즈키아유미(여류최강위), 아오키기쿠요, 고니시카즈코, 만나미가나 등이 출전시킨다.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후 10월 3일~17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벌어질 예정인 제1회 세계 마인드스포츠대회는 바둑, 체스, 브리지, 체커, 중국장기 등 5개 종목에 총 35개의 금메달이 걸렸다.

/오피니언 kroh@kwangju.co.kr

## “내일은 바둑왕” 세계어린이 국수전



세계의 바둑꿈나무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는 제8회 대학생명배 세계 어린이 국수전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63빌딩에서 열렸다. 승재환(안양 귀인초교 6년)군이 결승에서 변상일(서울 마장초교 5년)군과 맞붙어 불가능을 거두 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 ‘금강산 피격 사건’ 바둑계에도 불똥

## 10월 예정 바둑리그 ‘금강산 투어’ 불투명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의 여파가 바둑계까지 미치고 있다. 지난 11일 금강산 관광 중이던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총을 맞고 사망한 지 열흘이 지나도록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10월로 예정된 KB국민은행 2008한국 바둑리그 금강산투어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한국바둑리그는 야구나 축구같은 프로스포츠를 모델로 2003년도에 창설된 텁텁 단체전이다.

프로 바둑대회에서는 처음으로 지역연고제를 택하고 유니폼을 착용하는 등 다른 대회와의 차별화에 성공해 첫 해 총 규모 2억 4천만 원의 소규모 대회에서 올해는 35

억원짜리 대형기전으로 발전했다. 텁텁 14경기씩 치르며 12경기는 바둑TV스튜디오에서 벌어지고 그 중 두 경기는 연고지별 흙 앤드 어웨이로 치른다.

올해 신생팀인 티브로드는 연고지를 이복 5도로 선택했다.

800만 실향민들의 통일을 향한 염원을 대변한다는 취지였다. 한국리그의 주최사인 바둑TV는 티브로드와 제일화재의 경기가 10월 1일에 북한 금강산 외금강호텔에서 티브로드 홈경기로 개최하기로 하고 현대아산 측과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호텔에 약은 물론 방송에 필요한 중계차도 반입절차를 마쳤고 한국

/연합뉴스

## 삼성화재배 통합예선 28일 막 올라

제13회 삼성화재배 세계바둑오픈 통합예선전이 28일부터 8월 2일까지 서울 한국기원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주최국인 한국에서 196명이 출전하고, 중국 51명, 일본 47명, 대만 19명, 아마추어 6명 등 모두 319명(남자 268명, 여자 51명)이 참가한다. 삼성화재배 통합예선 사상 최다 참가인원이다.

통합예선에서 중국 선수단이 일본보다 많이 출전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본선 티켓 16장 중 14장의 티켓이 주어진 남자부의 경쟁률은 19.1 대 1, 2장의 티켓이 걸려 있는 여자부의 경쟁률은 25.5 대 1이다.

16장의 시드는 전기 4강(이세돌·박영훈·구리 9단, 황이중 6단), 삼성화재배 킹즈드림 4명(이창호·조준

현·유창혁·창하오 9단)과 국가지도로 한국 3명(목진석·조한승·박정상 9단), 중국 2명(리자 6단, 저우루이양 5단), 일본 2명(미정), 와일드카드 1명에게 주어진다.

중국은 10회 대회 우승자인 웨시하 9단을 비롯해 랭킹 3~5위인 씨에허 7단 풍지에 7단 박문요 6단, 랭킹 7~9위 왕레이 8단 후야오위 8단 담웨이 9단, 랭킹 11~16위 왕시 9단 류상 7단 왕야오 6단 치우진 8단 저우루이양 9단 천야오 9단 등 최정에 기사가 전원 출동한다.

/오피니언 kroh@

제17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비��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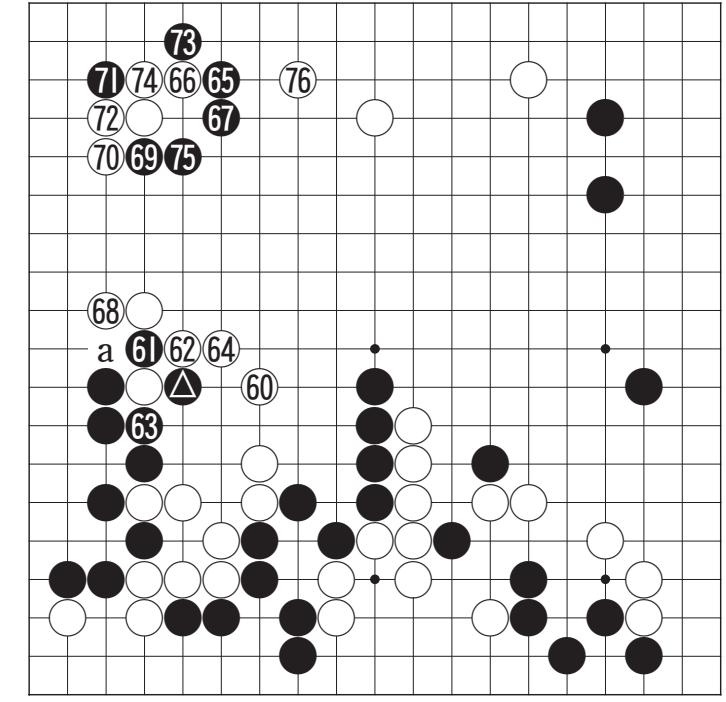
위기 뒤의 찬스

4회전 1국 5보 (60~76)

白 김광식 5단

黑 박광주 5단

(주)송림(포스코)



찔러가는 수가 있어 서 대책이 없다.

초반부터 김광식 5단이 위험천만한 곡예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박광주 5단이 계속해서 결정타를 놓

(참고고 1) (참고고 2)

박광주 5단은 뒤늦게 흑 ▲로 공격해 있는데 이 수도 급소를 벗어난 수로 백을 편하게 도망가게 해주고 만다.

이 수로는 '참고고 1'의 흑 1로 침착하게 밀어가는 수가 좋은 수였다. 이렇게 가만히 밀어가기만 해도 백에게는 거의 응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백 2로 받는 것은 흑 3이 강력해 서 7까지 틀어 막히게 된다. 또 백 2로 4에 한칸 뛰는 것은 흑이 '가'로

치고 있다는 것이다.

흑 63도 'a'로 이를 곳이 있으며 백이 68로 내려서자 갑자기 좌변의 백 모양이 크게 부풀고 있다.

위기 뒤에 찬스가 온다고 했던가, 이번에는 박광주 5단이 갈팡질팡하며 좌상귀에서 위기에 몰리고 있다.

흑 71로는 '참고고 2'와 같이 둘 끝.

이겼으면 수습이 쉬웠다. 백 76까

지 김 5단이 맹공을 펴보기도 있다.

흑 63도 'a'로 이를 곳이 있으며 백이 68로 내려서자 갑자기 좌변의 백 모양이 크게 부풀고 있다.

위기 뒤에 찬스가 온다고 했던가, 이번에는 박광주 5단이 갈팡질팡하며 좌상귀에서 위기에 몰리고 있다.

흑 71로는 '참고고 2'와 같이 둘 끝.

이겼으면 수습이 쉬웠다. 백 76까

지 김 5단이 맹공을 펴보기도 있다.

흑 63도 'a'로 이를 곳이 있으며 백이 68로 내려서자 갑자기 좌변의 백 모양이 크게 부풀고 있다.

위기 뒤에 찬스가 온다고 했던가, 이번에는 박광주 5단이 갈팡질팡하며 좌상귀에서 위기에 몰리고 있다.

흑 71로는 '참고고 2'와 같이 둘 끝.

이겼으면 수습이 쉬웠다. 백 76까

지 김 5단이 맹공을 펴보기도 있다.

흑 63도 'a'로 이를 곳이 있으며 백이 68로 내려서자 갑자기 좌변의 백 모양이 크게 부풀고 있다.

위기 뒤에 찬스가 온다고 했던가, 이번에는 박광주 5단이 갈팡질팡하며 좌상귀에서 위기에 몰리고 있다.

흑 71로는 '참고고 2'와 같이 둘 끝.

이겼으면 수습이 쉬웠다. 백 76까

지 김 5단이 맹공을 펴보기도 있다.

흑 63도 'a'로 이를 곳이 있으며 백이 68로 내려서자 갑자기 좌변의 백 모양이 크게 부풀고 있다.

위기 뒤에 찬스가 온다고 했던가, 이번에는 박광주 5단이 갈팡질팡하며 좌상귀에서 위기에 몰리고 있다.

흑 71로는 '참고고 2'와 같이 둘 끝.

이겼으면 수습이 쉬웠다. 백 76까

지 김 5단이 맹공을 펴보기도 있다.

흑 63도 'a'로 이를 곳이 있으며 백이 68로 내려서자 갑자기 좌변의 백 모양이 크게 부풀고 있다.

위기 뒤에 찬스가 온다고 했던가, 이번에는 박광주 5단이 갈팡질팡하며 좌상귀에서 위기에 몰리고 있다.

흑 71로는 '참고고 2'와 같이 둘 끝.

이겼으면 수습이 쉬웠다. 백 76까

지 김 5단이 맹공을 펴보기도 있다.

흑 63도 'a'로 이를 곳이 있으며 백이 68로 내려서자 갑자기 좌변의 백 모양이 크게 부풀고 있다.

위기 뒤에 찬스가 온다고 했던가, 이번에는 박광주 5단이 갈팡질팡하며 좌상귀에서 위기에 몰리고 있다.

흑 71로는 '참고고 2'와 같이 둘 끝.

이겼으면 수습이 쉬웠다. 백 76까

지 김 5단이 맹공을 펴보기도 있다.

흑 63도 'a'로 이를 곳이 있으며 백이 68로 내려서자 갑자기 좌변의 백 모양이 크게 부풀고 있다.

위기 뒤에 찬스가 온다고 했던가, 이번에는 박광주 5단이 갈팡질팡하며 좌상귀에서 위기에 몰리고 있다.

흑 71로는 '참고고 2'와 같이 둘 끝.

이겼으면 수습이 쉬웠다. 백 76까

지 김 5단이 맹공을 펴보기도 있다.

흑 63도 'a'로 이를 곳이 있으며 백이 68로 내려서자 갑자기 좌변의 백 모양이 크게 부풀고 있다.

위기 뒤에 찬스가 온다고 했던가, 이번에는 박광주 5단이 갈팡질팡하며 좌상귀에서 위기에 몰리고 있다.

흑 71로는 '참고고 2'와 같이 둘 끝.

이겼으면 수습이 쉬웠다. 백 76까

지 김 5단이 맹공을 펴보기도 있다.

흑 63도 'a'로 이를 곳이 있으며 백이 68로 내려서자 갑자기 좌변의 백 모양이 크게 부풀고 있다.

위기 뒤에 찬스가 온다고 했던가, 이번에는 박광주 5단이 갈팡질팡하며 좌상귀에서 위기에 몰리고 있다.

흑 71로는 '참고고 2'와 같이 둘 끝.

이겼으면 수습이 쉬웠다. 백 76까

지 김 5단이 맹